

영원한 어머니 마리아

Mary the Eternal Mother

요한계시록 12:1-6

그리니치 한인교회

2013년 5월 12일 어머니주일 설교

¹하늘에 큰 이적이 보이니 해를 입은 한 여자가 있는데 그 발 아래는 달이 있고 그 머리에는 열 두 별의 면류관을 썼더라. ²이 여자가 아이를 배어 해산하게 되매 아파서 애써 부르짖더라. ³하늘에 또 다른 이적이 보이니 보라 한 큰 붉은 용이 있어 머리가 일곱이요 뿔이 열이라. 그 여러 머리에 일곱 면류관이 있는데 ⁴그 꼬리가 하늘 별 삼분의 일을 끌어다가 땅에 던지더라. 용이 해산하려는 여자 앞에서 그가 해산하면 그 아이를 삼키고자 하더니 ⁵여자가 아들을 낳으니 이는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라. 그 아이를 하나님 앞과 그 보좌 앞으로 올라가더라. ⁶그 여자가 광야로 도망하매 거기서 일천 이백 육십일 동안 저를 양육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예비하신 곳이 있더라.

영원한 처녀 마리아

전에 젊은 그룹 모임에서도 소개했고 또 사랑지에도 실었습니다만 미켈란젤로가 그린 아기 예수 가족 그림을 기억하시지요? ‘도니 톤도 (Doni Tondo)’라는 동그란 그림인데 앞에는 마리아가 앉아있고 뒤에는 요셉이 쭈그리고 앉아서 마리아와 함께 아기 예수를 들고 있는 그림입니다. 아기 예수 가족을 그린 여느 그림과 달리 마리아와 요셉을 나란히 둔 점이 아주 뛰어나지만 한 가지 한계는 극복을 못 했다 말씀드렸는데 그 한 가지가 뭐였습니까?

예, 요셉을 노인으로 그렸다는 점입니다. 아기 예수 가족 그림이 다 그렇습니다. 마리아는 젊는데 요셉은 다 할아버지로 그렸습니다. 왜 그랬다고요? 예, 마리아를 영원한 처녀로 지키고 싶어 그랬습니다.

마리아는 우리 구주이신 예수를 낳은 어머니입니다. 얼마나 귀찮습니까? 정말 복 받은 여자 아닙니까? 구세주를 뱌 때 남자하고 관계를 가져 뱌 게 아니고 성령께서 마리아의 몸에 임하셔서 임신이 되었습니다. 그러니 아이를 낳긴 했지만 처녀입니다. 남자를 모르는 처녀입니다. 그런데 무슨 이유인지 교회는 이 마리아를 예수를 낳은 이후에도 계속 처녀로 지키려 했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니 문제가 좀 있습니다.

다른 문제도 있지만 가장 심각한 건 예수의 동생들입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에 그 모친과 동생들이 예수께 말하려고 밖에 섰더니” (마 12:47). 또 있지요? “이는 그 목수의 아들이 아니냐? 그 모친은 마리아, 그 형제들은 야고보, 요셉, 시몬, 유다라 하지 않느냐? 그 누이들은 다 우리와 함께 있지 아니하냐” (마 13:55-56)?

이름까지 나옵니다. 예수님에게 동생이 있다면 마리아가 처녀가 될 수 없겠지요? 그런데 우리말로 동생이라 했지만 원문에는 그냥 형제자매들입니다. 그래서 머리를 짜냈습니다. 마리아의 자식이 아니라 요셉의 자식일 거다. 요셉이 마리아하고 결혼하기 전에 전처한테서 얻은 자녀라는 말입니다. 아들이 넷 딸도 적어도 둘입니다. 그러자면 요셉이 나이가 좀 많아야 됩니다. 그래서 그림마다 마리아는 젊은 여자고 요셉은 할아버지입니다. 대머리 아니면 백발을 하고 주름살도 많습니다. 마리아를 영원한 처녀로 만들려 하다가 애꿎은 요셉만 늙어 버렸습니다.

교회의 오랜 전통

마리아가 남자를 모르는 처녀의 몸으로 예수를 낳으셨다는 것은 성경이 분명하게 가르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면서 사람이 되시기 위한 일로서 우리 구원을 위해 꼭 필요한 일이었습니다. 이거 우리도 믿습니다.

그런데 마리아가 그렇게 예수를 낳은 뒤에도 처녀였느냐, 이건 성경이 말하지 않습니다. 아예 관심조차 없습니다. 조금도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래서 사도들도 그 문제는 언급도 하지 않습니다. 예수께서 동정녀의 몸에서 태어나셨으면 됐지 예수를 낳은 마리아가 그 뒤에 요셉하고 동침을 했느냐 안 했느냐 그게 무슨 상관입니까?

그런데도 교회에는 마리아가 예수를 낳은 뒤에도 요셉하고 부부관계를 갖지 않고 죽을 때까지 처녀로 지냈다 믿고 싶은 사람이 있었습니다. 성경을 찾아보니 방법이 없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사 세기부터 교회에는 마리아가 평생 처녀였다는 쪽과 아니라 하는 쪽이 나누어졌습니다. 그러다가 처녀라 주장하는 사람이 많아지면서 마리아는 예수를 낳기 전에도, 낳는 동안에도, 낳은 후에도 처녀였다 하는 게 교회의 공식 교리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좀 생소하지요. 그런데 기독교 초기 지도자 가운데 이 교리를 믿는 사람이 꽤 많았고 기독교 신학의 체계를 세웠다 하는 아우구스티누스도 이 교리를 믿었습니다. 중세 천 년 동안에는 이 교리를 시비하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종교개혁 때 성경으로 돌아가자 하면서 이 마리아 교리도 비판을 하게 되었지만 개혁자 마틴 루터도 마리아가 영원한 처녀라 믿었습니다. 감리교를 창시한 요한 웨슬레도 이 교리를 믿었습니다. 지금도 천주교뿐 아니라 개신교 가운데도 성공회나 루터교 가운데는 이 교리를 받아들이는 분파가 꽤 있습니다.

요셉의 자식, 예수의 사촌

그런데 우리는 왜 아니라 합니까? 이유는 간단합니다. 성경이 아니라 하니 성경대로 믿습니다. 예수의 동생들이 성경에 나옵니다. 마리아를 처녀로 지키자니 마리아가 낳은 예수의 동생들을 다른 사람 자식으로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나오게 요셉의 자식들이었다는 주장입니다. 요셉이 마리아와 결혼하기 전에 이미 결혼을 했었는데 그 때 아들 넷에 딸도 여럿을 낳았다는 이야기입니다. 동생들이 아니고 형, 누나였다는 말이지요. 그래서 요셉은 본의 아니게 나이 많은 홀아비가 되었습니다.

나이 좀 많은 거야 괜찮습니다. 왜요? 찢어지게 가난하고 자식까지 여럿 딸린 늙은 홀아비가 젊은 처녀 마리아를 아내로 맞이했으니 요즘 식으로 하면 아주 능력 있는 남자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젊은 처녀와 결혼해 놓고도 잠은 같이 못 잤습니다. 마리아가 정말 죽을 때까지 처녀였다면 요셉은 정말 대단한 사람이겠지요? 성자 가운데서도 성자일 겁니다. 아닌게 아니라 마리아와 함께 요셉까지 진짜 성자로 만들려 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요셉도 평생 총각이었다는 겁니다. 그러자면 요셉도 초혼이라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의 형제자매가 요셉의 전처 자식이 아니고 사실은 예수의 사촌이었다 하는 사람이 생겼습니다.

예수의 이모가 낳은 이종사촌이라는 주장도 있고 또 예수와 세례요한이 사촌이라 하면서 세례요한의 동생이었다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예수의 이모는 어디서 왔을까 그것도 궁금하지만 세례요한의 동생이었다면 더 엄청나겠지요? 세례요한의 어머니 엘리사벳은 요한을 낳을 때 이미 할머니였습니다. 그런 할머니가 요한을 낳은 뒤로 아들 넷에 딸도 여럿을 더 낳았다, 정말 대단한 할머니지요. 이런 억지 주장이 왜 나왔겠습니까? 마리아뿐 아니라 요셉도 평생을 동정으로 살았다 하는 아주 해괴한 주장 때문이었습니다.

교리가 성경을 바꿈

마리아를 영원한 처녀로 만들기 위해 성경 다른 구절도 조금 비틀었습니다.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마리아와 요한을 어머니와 아들로 엮어주신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보라 네 어머니라.” 동생이 있었다면 왜 어머니를 요한에게 부탁했느냐, 그러니 마리아한테는 예수 말고 자녀가 없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 부분만 보면 그런 것도 같지요. 그렇지만 그 말씀은 주 예수를 믿는 사람은 그렇게 한 식구가 된다는 뜻이고 안 믿는 동생들보다 제자 요한이 주 안에서 더 가까운 사이라는 말씀입니다. 전에 어머니와 동생들이 찾아왔을 때도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누가 내 모친이며 내 동생들이냐?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모친이니라” (마 12:48, 50). 그래서 나중에 예수의 동생들이 예수를 믿은 다음에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오순절을 앞두고 모여서 기도하는데 예수의 모친과 예수의 동생들이 함께 있습니다.

천사 가브리엘이 마리아에게 나타나 아들을 낳을 거라 알려주자 마리아가 묻습니다. “나는 사내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이까” (눅 1:35)? 남자 경험이 없는데 어떻게 아들을 낳을 수 있느냐 묻는 거지요? 그런데 이 구절도 왜곡해서 마리아의 처녀서약으로 만들었습니다. “저는 사내를 모릅니다” 한 게 결국 “저는 평생 사내를 모르고 살겠습니다” 하는 말이라는 겁니다. 마리아가 들으면 기가 찰 겁니다. 그렇게 고치면 마리아는 평생 처녀가 될지 몰라도 하나님 말씀 성경은 앞뒤가 안 맞는 이상한 책이 되어 버립니다.

잘 모르는 게 있으면 성경에서 지혜를 구하고 성경에 맞게 우리 생각을 고쳐야 되는데 이 마리아 교리는 영똥한 교리 하나를 지키려 하다가 성경을 마구 왜곡시키고 말았습니다. 성경을 잘 요약해서 교리가 되는데 거꾸로 교리를 먼저 만들어 놓고 성경을 끼워 맞추니 아주 잘못된 일입니다.

사람을 높이는 잘못

마리아가 영원히 처녀였다는 교리는 성경과 다르기 때문에 절대 용납할 수 없고, 두 번째로는 사람을 높이는 잘못이기 때문에 용납해서는 안 됩니다. 마리아는 분명히 복 받은 사람입니다. 나를 구원하실 구세주를 한 번 뵈기만 해도 더없는 영광일 터인데 그 구세주를 내 몸에 배고 낳고 길렀습니다. 기나긴 인류 역사에서 오직 한 사람만 누릴 수 있는 특권인데

그걸 마리아가 누렸습니다.

그렇지만 마리아가 그런 특권을 누렸다고 해서 보통 사람과 다른 차원에 있느냐 하면 그건 아닙니다. 마리아도 다른 사람과 똑같이 죄인의 한 사람이요, 내 몸에서 태어나 자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만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이 점에서 마리아도 다른 사람과 똑같습니다.

그런데 처음부터 사람을 하나님처럼 높이고 싶어 하는 이들이 교회에 있었습니다. 착한 일을 많이 한 사람이거나 주님을 위해 순교한 사람들을 성자라고 부르면서 보통 사람보다 조금 높은 자리에 올려놓고 하나님께 드릴 기도를 이 성자들에게 합니다. 성자는 하나님하고 더 친하니까 하나님한테 대신 전해 달라는 거지요. 우상 숭배입니다. 하나님 아닌 사람을 섬겨 우상숭배가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눈에 보이는 대상을 따르고 그 대상을 눈에 보이게 조각으로 그림으로 만들어 섬기는 것이니 우상입니다.

처음에는 마리아는 영원히 처녀다 하는 교리로 시작했습니다. 그러더니 언제부턴가 마리아가 승천했다는 교리가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에녹과 엘리야가 죽지 않고 하늘에 간 것처럼 마리아는 죽은 다음 몸과 영혼이 바로 하늘 영광으로 올라갔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마리아를 하나님의 어머니라 부르기도 합니다. 마리아는 예수의 어머니인데 예수가 성자 하나님이시니까 마리아는 하나님의 어머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기도도 하나님 대신 마리아한테 합니다. 하나님의 어머니 아닙니까? 그래서 어머니한테 기도하고는 아드님한테 잘 말씀해 주세요, 합니다.

기도를 전해주는 정도라면 괜찮을 것 같습니까? 거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예수께서 하신 구원의 상당 부분을 이 마리아가 말합니다. 천주교는 마리아를 둘째 하와라 부릅니다. 그리스도가 둘째 아담이 되어 아담이 죽여 놓은 사람을 구원하신다 했는데 하와가 망쳐 놓은 걸 마리아가 바로잡았다 합니다. 예수께서 하신 일을 마리아도 똑같이 했다는 소리지요? 이대로 두면 얼마 안 가서 마리아가 십자가에 달렸다는 교리도 나올지 모릅니다.

사람을 높이는 일은 언제든 어디서든 마귀를 따르는 일입니다. 사람을 높이는 교만, 그게 바로 인류가 처음 지은 죄 아닙니까? 하나님처럼 되고 싶은 그 마음 때문에 죄를 짓고 그 죄 때문에 지금도 이렇게 많은 고통 가운데 신음하고 있으면서 아직도 정신을 못 차리고 똑같은 잘못을, 세상도 아닌 교회에서, 되풀이하고 있습니다.

성을 나쁘게 보는 잘못

마리아가 평생 처녀였다는 말을 들을 때 빼놓을 수 없는 질문이 하나 있습니다. 처녀인 게 뭐가 그리 중요한가 하는 질문입니다. 마리아가 처녀의 몸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낳은 것은 우리 구원에 꼭 필요한 요소지만 그렇게 메시아를 낳은 이후에 부부생활을 하고 안 하고는 우리 구원과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그런데 왜 결혼한 두 사람을 잠은 같이 못 자게 떼 놓았을까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마리아를 처녀로 지키려 한 이유는 성 곧 섹스가 죄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이거 심각한 오해입니다. 이건 다 살피려면 끝이 없습니다만 성을 더러운 것으로 보는 시각은 고대에 있던 영지주의라는 사상 때문입니다. 몸은 더럽고 영혼은 고귀하다는 이원론 사상입니다. 동양의 유교도 그렇습니다만 영혼은 고귀하고 몸은 더럽다고 보는 이원론이 세계 곳곳에 퍼져 있습니다. 이 사상으로 볼 때 몸과 몸이 하는 성관계는 아주 더러운 행동입니다. 그래서 성을 더럽게 보고 결혼을 하면 부부생활을 하게 되니까 독신으로 지내는 게 좋다 했습니다.

이런 사고방식이 교회에 들어오자마자 죄하고 연결이 되었습니다. 성경은 사람은 다 죄인이라 분명히 가르치면서도 어떤 방법으로 죄인이 되는지는 말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부모에게서 타고난다는 주장도 있고 어려서부터 보고 배운다는 주장도 있습니다만 교회 초기의 많은 사람들이 부모의 성관계를 통해 죄가 자녀에게 전달된다고 보았습니다. 성이 더러운 거니까 그걸 통해 생겨나는 자녀도 죄인이 된다는 말입니다. 성경 구절도 억지로 갖다 대긴 했지만 성경은 성이 나쁘다거나 성을 통해 죄가 유전된다고 가르치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동정녀 탄생도 오해했습니다. 예수님이 섹스 없이 잉태되셨기 때문에 죄 없는 몸이 되셨다 생각했습니다. 예수께서 죄 없는 몸이 되신 것은 마리아의 몸을 빌린 했지만 성령께서 생명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섹스하고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그런데도 섹스를 안 해 거룩하다 생각했습니다. 마리아가 영원히 처녀라야 되는 이유도 같은 차원입니다. 마리아가 구원을 위해 하는 일이 꽤 많아졌습니다. 기도도 들어주고 하와가 망친 걸 회복도 한답니다.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아야 되는 사람이 아니고 예수님하고 구원 사역을 함께 하는 사람처럼 되었습니다. 그러니 남자를 몰라야 됩니다. 결국 마리아는 죄인이 아니라는 말이 됩니다. 그래서 이 교리가 더더욱 위험합니다.

천주교는 지금도 독신주의를 고집하고 있습니다. 신부도 수녀도 다 독신입니다. 목사도 스캔들을 많이 일으키니까 신부들의 스캔들이 꼭 독신주의 때문이라 하긴 어렵지만 독신을 고집하는 이유가 바른 건지 잘 살펴야 됩니다. 사도바울도 독신

을 권합니다. 이유는 그리스도께 전적으로 헌신하기 위해서입니다. 식구가 있으면 아무래도 어렵겠지요. 주님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스스로 고자 된 자가 있다 하셨습니다 (마 19:12). 그런 독신이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만약 성이 더러운 것이라 생각해서 독신을 고집한다면 그건 결혼해 사는 사람들을 다 더러운 사람으로 보는 잘못된 뿐 아니라 사람을 처음부터 남녀로 만드신 하나님의 뜻에도 어긋나는 일입니다.

어머니는 누구인가

오늘은 어머니주일입니다. 어머니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우리를 위해 희생하신 어머니께 보답하는 날입니다. 어머니가 어떤 사람입니까? 어머니가 절대 될 수 없는 사람이 있지요. 누굽니까? 처녀입니다. 자녀를 낳아야 어머니인데 자녀는 다 성을 통해 생깁니다. 그러니 어머니가 되려면 남자를 알아야 됩니다.

처녀가 어머니보다 거룩합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립니다. 누가 더 고귀합니까? 처녀입니까 어머니입니까? 사람으로 따지자면 똑같습니다. 처녀도 거룩하고, 결혼한 여자도 거룩하고, 결혼해 자녀를 낳은 여자도 거룩합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남녀로 만드셔서 같이 살게 하셨습니다. 그러니 부부가 되어 사는 것, 특히 부부가 동참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거룩한 행위입니다. 그런데 세상에 죄가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인간관계를 일그러뜨렸습니다. 불평등이 생기고 간음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죄 때문에 혼자 사는 것도 괜찮아졌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본디 뜻은 모든 남녀가 부부가 되어 가정을 이루고 사는 것이었습니다. 남자도 맡은 일이 있지요. 하지만 여자의 역할이 더 중요합니다. 죄가 들어온 이후에는 더 그렇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약속하신 메시아는 여자의 아들로 오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시지만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 되시기 위해 다른 모든 사람이 태어나는 것과 똑같은 방식으로 여자의 몸에 임신되고 태어나실 것입니다. 그래서 여자의 출산에는 언제나 구원의 뜻도 함께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용하시는 구원방법을 보면 성은 더러운 것이 아니라 죄가 더럽힌 것을 구원해 가는 방법입니다.

어머니 마리아

하나님은 사람이 죄를 짓자마자 구원의 길을 약속하셨습니다. 죄를 지은 여자가 아들을 낳을 것인데 그 아들이 여자를 피어 죄를 짓게 만든 마귀를 억누르고 우리 인간에게 구원을 주실 것이라는 약속이었습니다. 여자를 통해 구원을 주시는데 처녀가 아닌 어머니를 통해 주겠다 하셨습니다.

마리아는 하나님이 그 약속을 이루기 위해 선택하신 그릇이었습니다. 그러니 마리아는 처음부터 어머니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처녀였지만 처녀 된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성령의 능력으로 어머니가 될 그게 더 중요했습니다. 딸도 아니고 아내도 아니고 처음부터 어머니였습니다. 메시아를 낳아 기를 어머니였습니다. 그게 답입니다. 메시아를 낳은 뒤 계속 처녀였느냐 아니냐 그건 조금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마리아는 처음부터 어머니였습니다. 구세주를 낳았으니 복된 어머니입니다. 마리아는 영원한 처녀가 아니라 영원한 어머니입니다.

하나님은 여자에게 아들이 태어나 구원을 이룰 것이다, 다시 말해, 네가 어머니가 됨으로써 구원이 이루어질 것이다, 하시면서 어머니가 된다는 게 어떤 것인지 알려 주셨습니다. “내가 네게 잉태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네가 수고하고 자녀를 낳을 것이며” (창 3:16). 잉태하는 고통을 흔히들 출산 때의 고통으로 알고 있는데 그게 아닙니다. 잉태의 고통 곧 어머니가 되는 아픔을 이야기합니다. 어머니는 아픔입니다. 아이를 낳을 때 몸도 아프지만 그보다 더한 것은 마음의 아픔입니다. 그 모든 아픔이 어디서 왔겠습니까? 죄에서 왔지요. 어머니가 되기 전에 한 남자의 아내가 되는데 아내는 남편의 다스림을 받습니다. 부당한 억압도 많은데 대부분이 어머니이기 때문에 겪는 것들입니다. “애들만 아니면.....” 수천 년 내려온, 지금도 이어지고 있는 어머니의 아픔입니다.

자녀를 기르는 것도 아픔입니다. 세상에 이것만큼 힘든 일이 어디 있습니까? 자녀가 잘 되면 영광은 주로 아버지가 챙겨가지만 양육의 고통, 자녀에 대한 걱정, 잘못 될 때 겪는 아픔, 이런 것들은 다 어머니 몫입니다.

교회와 어머니

하나님이 약속하신 구원자가 이천 년 전 이 땅에 오셨습니다. 약속대로 여자의 아들로 태어나셨습니다. 오늘 본문이 그 장면을 상징적으로 보여줍니다. 여인이 아이를 낳습니다. 해, 달, 별이 함께 있어 여인의 영광을 드러냅니다. 여인은 교회를 상징합니다. 구약시대 하나님이 준비하신 교회를 통해 그리스도가 나셨습니다. 마리아라는 여인 곧 예수의 어머니는 교회를 대표하는 여인입니다. 아이를 낳는데 아파서 부르짖었다 합니다. 어머니 된 아픔의 시작입니다.

산모 곁에 용이 보입니다. 옛 뱀인데 이 용도 나뉠의 권력과 영광을 가졌습니다. 여인 곁에 지키고 섰는데 태어나는 아이

를 잡아먹으려고 기다립니다. 왜요? 아이가 태어나면 내 머리를 깨뜨리고 나를 죽일 것이니 내가 먼저 아이를 잡아먹으려 하는 겁니다. 마귀는 헤롯 대왕을 통해 그런 시도를 했습니다.

여자가 드디어 아들을 낳았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구원자입니다. 권세와 능력으로 세상을 다스릴 분입니다. 그런데 용이 잡아먹을 틈도 없이 하나님 보좌 앞으로 올라가 버렸습니다. 아들은 사람이면서 또한 하나님의 아들로 오셨습니다. 성령께서 함께 계셨습니다. 그래서 이 아들이 태어나는 순간 싸움은 이미 끝났습니다. 하나님의 권세를 가지시고 구원을 이루실 것입니다. 마귀를 제거하시고 우리에게 구원과 영생을 주실 것입니다.

그런데 아이를 낳은 어머니는 하늘로 못 갔습니다. 대신 광야로 도망을 갑니다. 용에게 먹힐 수 없어 도망을 가는데 갈데가 없어 광야로 갑니다. 광야는 고통의 자리입니다. 슬픔의 자리입니다. 아들을 낳았기 때문에, 구원자를 낳았기 때문에, 그렇게 도망을 가 고통을 겪어야 됩니다. 그래서 사탄과 여자 사이에 싸움이 일어납니다. 사탄이 온갖 괴로움을 주면서 여자를 힘들게 합니다 (계 12:13-17). 주 예수께서 오신 이후 주 예수를 구주로 믿는 우리가 겪을 운명을 보여줍니다. 교회의 모습인데 어머니의 모습입니다. 영광을 받기 위해 고난을 받는 모습입니다.

어머니와 구원

마리아는 여인 가운데 가장 복된 여인입니다. 마리아가 받은 복은 처녀의 복이 아니라 어머니의 복입니다. 어머니가 되어 자녀를 낳고 기르는 것은 죄가 더럽힌 인간 세계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어머니가 된다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을 더 잘 깨닫고 하나님의 구원을 더 잘 느낄 수 있는 특권입니다. 그러니 여기 계시는 우리 어머니들도 어머니 된 것이 복이라는 것을 분명히 아시기 바랍니다.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놀라운 복입니다. 남자는 알 수 없는, 여자도 어머니 아닌 사람은 알 수 없는 복입니다.

어머니 된 것을 감사할 수 있으면 어머니가 되어 겪는 아픔도 이길 수 있습니다. 어머니는 아픔입니다. 어머니를 통해 구원이 이어지고 그래서 마귀는 어머니를 싫어합니다. 어머니가 겪는 아픔을 하나하나 어떻게 다 표현하겠습니까? 사는 환경에 따라 아픔의 종류는 다르겠지만 어머니이기 때문에 겪어야 한다는 건 같을 것입니다. 그 아픔 하나하나에 구원의 뜻이 담겼습니다. 어떤 아픔이든, 그게 얼마나 큰 것이든, 어머니 됨을 구원의 방법으로 삼으신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고 그런 방법으로 기어이 구세주를 주신 하나님께서 나의 이 아픔도 얼른 덜어 주시도록 기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머니가 아닌 우리는 그저 우리와 함께 계시는 모든 어머니를 위로하고 격려해 드리면서, 어머니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려야 되겠습니다. (권수경 목사)